

서부 사하라 의료지원단 장병에게 보내는 격려 서신

서부 사하라 의료지원단 장병 여러분,

우리 군을 대표해서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. 오늘은 설인데, 워낙 낯선 곳이라 떡국이라도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가족들과 떨어져 있지만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기 바랍니다.

우리 의료지원단이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파병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. 그동안 모두 5만여 명을 진료하는 등 헌신적인 의료지원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았습니다.

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여러분이 하는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.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큰 자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.

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